

민경구 교수의 출애굽, 구원 이야기

6강 구름 기둥과 불 기둥 : 하나님의 임재

시작 하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이라는 광야 생활 기간에 하나님의 인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처럼 눈으로 볼 수 없는 비가시적 현상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시각화함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보다 생생한 것으로 묘사됐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보도하는 출애굽기 13장에서 등장한다. 그렇다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야기는 어디에서 종결되는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면, 가나안 입성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있을까? 여하튼 구름 기둥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모습 구약 어느 시대부터인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것이 변화하는 시점은 어디이며, 어떤 이유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변화됐을까?

2.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인도를 상징하는 표상이다. 이것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본문은 출애굽기 13장이다. 이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한 직후이므로, 출애굽기 13장을 먼저 관찰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2.1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13:21-22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긴 여정을 떠난다. 이 본문에서 눈에 띄는 것은 하나님이 출애굽 한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개념은 이전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곳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는 낮에는 구름의 모습, 밤에는 불의 모습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는 출애굽기 14:19-24에서도 확인되는데, 불과 구름은 출애굽 한 히브리인을 애굽 군대가 추적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불과 구름은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실제로 개입하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즉, 출애굽기 13-14장에서 관찰되는 불과 구름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준다.

출애굽기에는 계속해서 유사한 개념이 나타난다. 하지만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이동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했다는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다.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는 시내 산에 정주한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출애굽기의 마지막 구절(출 40:38) 만이 구름과 불이 낮과 밤을 번갈아서 함께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시내 산에서 모세는 구름 가운데 임재하는 하나님과 대면한다(출 19:9). 그러나 출애굽기에서 민수기로 넘어가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개념에는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등장한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출애굽기 40 장 이후부터 구름 기둥은 '회막'(오헬-모에드 혹은 '성막'(미쉬칸; 민 9:15)에 임하는 것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다(참조하라. 출 40:38).

2.2 민수기 10장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출애굽기 19 장은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 도착한 것을 보도하고 있다면, 민수기 10 장은 시내 광야를 떠났다는 것을 설명한다. 하지만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의 모습과 출발할 때의 모습을 비교하면 차이점이 확연히 드러난다.

출애굽기 19 장과 민수기 10 장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출애굽기 19 장에서 그것은 단독적으로 나타나지만, 민수기 10:11 에서 구름은 '성막' 혹은 '회막'과 함께 언급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민수기 11-12 장에서도 계속해서 확인된다. 하나님은 홀로 짐을 질 수 없다는 모세의 말에 '70 인 장로를 선택'하여 회막으로 모을 것을 명령한다.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서 임했고, '성막' 및 '장막'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가 되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는 마치 '성막' 위에 제한되어 임한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묘사는 성막 혹은 회막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신명기에서도 계속해서 확인되지만(신 31:15), 여호수아에서는 그것과 구별되는 표상이 나타난다.

2.3 여호수아 3장

무엇이 출애굽 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가? 하는 질문에 제기된다. 그것을 우리는 여호수아 본문에서 명확하게 관찰하게 된다.

본문에 따르면 여호와의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진행하여 백성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계속해서 출애굽기와 비교할 때, 여호수아에서는 한 가지 독특한 것이 확인되는데, 구름 혹은 불 기둥이라는 진술이 전혀 기록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여호수아서에서 구름 기둥이라는 표현은 나타나지 않지만, 그것을 대신하여 언약궤가 백성을 인도한다. 환언하면, 출애굽의 시작에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으로서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을 인도했다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는 구름 기둥이 아니라, 언약궤가 구름 기둥의 역할을 대치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성서는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가? 여호수아 3장에 앞서서 언약궤에 대해 기록하는 마지막 본문은 신명기 31장이다.

신명기 31장에 따르면 모세는 율법책이라 번역된 토라를 기록했으며, 그것을 언약궤와 함께 두

었다. 그로 인해 언약궤의 이동은 언약궤의 이동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언약궤를 메는 레위 제사장들은 토라를 책임지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정기적으로 토라를 낭독해야하는 책임을 맡은 자들이었고, 토라 순종을 교육해야 했다(신 31:12-13). 그것은 이후에 신명기 역사서가 토라를 중심으로 왕을 평가하는 것과 일맥 상통하며, 토라 준수가 강조된다.

3. 오경/ 육경

우리는 일반적으로 모세 오경이라는 것에 익숙해 있다. 첫 시간에 오경의 구조를 제시했듯이 이것은 아주 일반적이다. 하지만 출애굽기 13장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식을 불러온다.

출애굽기 13:19는 요셉의 유골에 대해 묘사한다. 이것은 요셉의 유언을 따르는 것인데, 그 유언은 창세기 50:25에서 확인된다.

사실 요셉의 유언이 지켜진다는 것은 아주 놀랍다. 왜냐하면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기간이 430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요셉의 유골은 어디에 매장되었을까? 우리는 이러한 기록을 여호수아 24:32에서 관찰할 수 있다.

이처럼 창세기 마지막인 요셉의 유골이야기는 여호수아 24:32 에서 종결된다. 창세기에서 여호수아까지, 즉 오경이 아닌 육경을 연결하는 근거가 된다.

특히 여호수아 24:26 기록은 눈에 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율법책(베세페르 토라트 엘로힘) 즉 토라를 기록했다고 서술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모세의 기록과 비교된다.

즉, 모세도 토라의 기록자로 등장하며, 여호수아도 토라의 기록자로 등장한다. 따라서 토라의 기록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토라의 개념을 바로 알아야 한다. 오늘날 오경의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래 모든 가르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